

책꾸러기

좋은책맘

졸업소감집

동원  
책꾸러기



책꾸러기  
좋은책맘  
졸업소감집

목차

- 3 책꾸러기와 함께한 순간들
- 22 책꾸러기에게 보내는 편지
- 68 책꾸러기란 \_\_\_\_\_다



# 책꾸러기와

# 함께한

# 순간들

동원육영재단이 16년 동안 운영한 책꾸러기는

아이가 그림책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마음껏 꿈꾸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1년 동안

육아서 1권과 그림책 11권, 총 12권의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책꾸러기와 함께한 1년은 부모와 아이의 교감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었고,  
또 그만큼 잊지 못할 추억이 차곡차곡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추억들을 살포시 꺼내보았습니다.

## <구름빵>을 보고 구름빵 만들었어요

후블리마밍

책꾸러기를 통해 받은 백희나 작가님의 <구름빵>. 아이가 이 책을 외워서 엄마, 아빠에게 읽어주는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조금 서툴긴 했지만 더듬더듬 읽어주는 게 어찌나 장하던지요. 그동안 이 책을 펴놓고 읽었던 시간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기억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뜻깊은 책이 되었어요. 독후활동으로 같이 구름빵도 만들었어요. <구름빵>은 지금도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 중장비 덕후 취향 저격

### <콩알 특공대와 생일 케이크>로 놀기

짱이덕후

책꾸러기 당첨 소식을 듣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는데, 활동하면서 더 정이 가고 마음이 짝 채워지더라고요. 매달 추천도서를 보며 무얼 고를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다른 친구들의 독후활동을 보고 동기부여 받아 아이와 책놀이도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도 <콩알 특공대와 생일 케이크>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모래놀이를 좋아해서, 중장비 장난감으로 모래도 푸욱푸욱 푸고요. 케이크 촛불도 몇 번이나 불고, 책 내용을 외우기까지 했어요.



##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ibookyou

책꾸러기는 참 감사한 존재였습니다. 아이 낳고 남편 따라 먼 지방으로 왔을 때 외출은커녕 책 구경도 하기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원책꾸러기에서 매달 오는 책 한 권이 어찌나 소중한고 반갑고 기쁘던지. 아이와 읽고 또 읽고 닳도록 읽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로 이사 와 동네에 도서관도 있고 서점도 있어 새로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그때만큼 소중한 책은 또 없더라고요.

책꾸러기는 단순히 책만 보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이에게 그림책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 준 고마운 친구같은 존재입니다. 추천도서 중에 동물 관련 책을 가장 좋아하고 또 동물을 직접 보고 싶어해서 동물원을 참 많이 갔어요. 책꾸러기 덕분에 아이가 동물 박사, 수의사를 꿈꾸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이 알사탕 먹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oirainio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알사탕>이에요. 얼마 전 전통시장에 갔다가 한과를 샀는데 사장님이 아이에게 옛날 알사탕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책에서 본 사탕을 먹으면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는지, 알사탕을 받아들고는 “이거 먹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고 묻더라고요.

사장님이 당황해하며 웃으셔서, 책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얼른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의 물음이 민망하면서도 귀여웠어요. 그 후론 <알사탕>을 볼 때마다 그때를 추억합니다. 책을 통해 아이가 세상을 배우고 느끼는 것 같아 책 육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 책꾸러기가 보낸 육아서를 모두에게 추천하고 다녀요

5세 하울맘

육아 고민도 많고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책꾸러기를 알게 됐어요. 아이가 두돌 지날 무렵이었죠. 말문은 트이는데 집에서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책은 무작정 읽어주면 되는지 아무 정보도 없이 막무가내 육아를 하던 때였어요. 그러던 중 책꾸러기가 보내준 육아서를 보며 멘탈을 잡았습니다. 2권의 육아서를 받았는데, 이 책들은 제 지인들에게 무조건 읽어보라고 권하는 책이 되었어요. 그동안 논술 교사였음에도 그림책의 세계를 몰랐는데, 책꾸러기를 통해 매달 받아보는 책과 수많은 그림책 정보를 접하며 북키즈카페에도 꼭 빠졌고 도서관도 다니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도 도서관 다니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저에게 힐링과 육아에 도움을 준 책꾸러기는 늘 고마운 존재입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

## 세계 책꾸러기 카페는 댓글만 개를 적을 만큼 소중했어요

댓글전설2314

책꾸러기 덕분에 매달 소중하고 즐거운 책들과 함께하다 보니 아이도 저도 이제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마무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단어만 말하던 18개월 아이는 어느새 자기 생각을 말로 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어요. 책을 읽는 즐거움과 카페에서 활동하며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덕분에 고단한 육아를 잘 버텸네요! 댓글만 개를 적을 만큼 너무나 즐거웠던 놀이터 같은 곳이라 책꾸러기 사업이 끝난다고 하니 친구와 헤어지는 기분이에요. 육아의 모든 순간을 책꾸러기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동원의 새로운 시작도 늘 응원할게요. 잊지 않겠습니다.

## 책꾸러기 덕분에 그림책을 고르는 안목이 생겼어요

룸룸

어떤 책이 좋을까, 어떻게 보여줄까, 얼마나 보여줘야 할까, 이정표가 필요할 때 책꾸러기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매달 보내주시는 책을 아이와 읽으며 무료하게 지내던 시간을 때웠는데, 점점 아이가 책 읽는 재미에 빠지면서 책꾸러기가 추천하는 다른 그림책들도 찾아 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까지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 아이와 제게 잘 맞는 책을 고르는 안목도 생겼습니다. 아이와 도서관에 가서 무슨 책을 빌려야 할지 막막할 때, 책꾸러기 추천도서 리스트와 북키즈카페의 좋은책맘 후기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팡팡 터져나온 책놀이 후기글도요. 다채로운 책놀이 덕분에 아이와 책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더 풍부한 상상의 나라를 펼쳤답니다.

---

##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찾았어요

스마일S2

책꾸러기 덕분에 아이에게 좋아하는 책이 생겼어요. 매일 읽을 만큼 좋아하는 책이요. 매일 읽다 보면 질릴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매일 읽어요. 장난감도 며칠 갖고 놀면 흥미를 잃었는데 책을 이렇게 오랫동안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요. 책꾸러기 아니었다면 몰랐을 아이 모습이 아닐지요. 좋아하는 책이 생기고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니 6살이 된 지금 느리지만 혼자서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북키즈카페에서 재미있는 책도 많이 알게 되고 좋은책맘들께 책놀이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책꾸러기를 알게 된 건 행운이에요!

## 책꾸러기와 함께한 1년은 책 육아 황금기였어요

난다후

책 육아에 관심을 갖고 전집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즈음, 책꾸러기를 만났어요. 매달 1일 12시 책꾸러기 추천도서가 뜨길 기다리고, 책이 오길 고대하던 1년이 제가 책 육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설레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책꾸러기 추천도서를 보고 대여하려 도서관에 가면, 항상 대기해야 했던 기억도 나네요. 덕분에 도서관에서 아이의 취향과 관심 분야도 파악하게 됐어요. 책꾸러기와 함께한 1년은 책놀이에 있어서도 황금기였어요. 사실 책놀이란 걸 거창하게 생각했는데, 북키즈카페에서 책놀이 후기를 보며 책놀이란 멋지고 대단한 것이라기보다 책을 함께 읽고 공감하고 간단하게 만들어나가면 되는 거란 배움을 얻었습니다. 후기를 보고 따라하다 보니 저도 어떻게 책놀이를 해줘야 할지 갈피가 잡히더라고요. 아이에게 책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고, 또 아이가 선택한 책을 한달 동안 기다리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책을 읽다 보니 어느새 아이가 한글을 깨우쳤어요

세운맘

매달 책을 고르고 기다리는 즐거움이 컸어요. 책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해줬더니 1년간 책 읽는 습관이 잡혀서 지금도 자기 전엔 항상 책을 읽는답니다. 그 덕인지 한글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아이가 한글을 깨우쳤어요. 백희나 작가님의 <장수탕 선녀님>과 우시쿠보 료타의 <펭귄 호텔>은 꾸준히 좋아해요. 책꾸러기 덕분에 마음 따뜻한 1년을 보냈답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와 엄마를 모두 변화시킨 책꾸러기

멍멍파

“안 돼”, “안 해”, “안 먹어”만 할 줄 아는 24개월 아이, 속상하고 화가 나면 아이 엉덩이를 팡팡 하던 저를 변화시키고 싶어 시작한 책꾸러기. 어떤 책을 어떻게 왜 읽어주는지 모른 채 방황하다 책꾸러기를 만났어요. 그 후로 30개월이 지난 지금, 아이는 책장에서 책을 고르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책을 볼 줄 알고 스스로 좋아하는 책을 찾아낼 줄 아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에게, 또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북키즈카페라는 소중한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밖에서 많이 놀진 못했지만, 엄마표 책놀이 덕분에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겼어요. 아이와 저에게 중요했던 순간, 좋은 분들을 만나 친정 같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감사합니다.

---

## 매달 받는 그림책 선물을 손꼽아 기다려요

포리맘님

육아서 한 권으로 시작된 책꾸러기와의 인연은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은 기회였어요. 유명한 전집은 있지만 유명한 단행본은 접하기 쉽지 않았는데, 책꾸러기의 추천도서와 좋은책맘들의 책 이야기는 제가 좋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받는 책꾸러기의 그림책을 선물로 알고 있어요. 책 선물이 왔다고 기뻐하면서 상자를 뜯는 엄마의 손을 두 눈 반짝이며 지켜보다 책을 건네주면 앉아서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이가 어찌나 바쁘지요. 책을 기다리는 설렘이 아이에게 책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함께 책을 보며 엄마와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행복한 일일 거예요.

## 외롭던 타지 생활 중 책꾸러기를 만나 이렇게 달라졌어요

빵떡맘

아는 사람 없는 타지생활에 책 육아는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책꾸러기를 만나고 북키즈카페에서 책과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을 나누며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아이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던 아이는 자신이 직접 고른 책을 소장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 했어요. 늘 책 배달이 올 때면 제가 포장을 뜯을 때까지 손으로 눈을 가리고 기다렸는데, 자신이 원했던 1순위 책이 오면 좋아서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거의 매일 하던 엄마표 책놀이는 아이표 책놀이로 바꿨어요. 아이가 만든 놀이를 할 때면 아이가 낸 아이디어인 만큼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워 했답니다. 책꾸러기의 작가 인터뷰 콘텐츠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이가 궁금해 한 질문에 작가님이 답 해줬다는 소식에 아이는 기절하는 척까지 하며 좋아했어요. 그 후 작가님의 신간 출간일까지 기다리는 열성팬이 되었답니다.

## 워킹맘의 행복, 아이들과 책 읽는 시간

two현사랑해

매월 초 아이와 함께 책 고르는 재미가 커요. 아이가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눈 반짝이며 고르네요. 일하는 엄마라 평일엔 정말 시간이 없는데, 잠자기 전 선물받은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답니다. 책이 몇 권씩 모이니 읽어주느라 목이 아프지만 참 행복한 시간이예요.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준 책꾸러기에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들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좋은 엄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책놀이 덕분에 미술 시간이 즐거워요

좋은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책을 세 가지로 나뉘요. 도서관 책, 엄마가 새로 산 책, 책꾸러기로부터 선물받은 책 이렇게요. 아이는 택배가 도착하면 책에 붙은 책꾸러기 스티커의 유무를 확인하는 습관도 생겼었답니다. 책놀이도 많이 했는데, 주로 물감 활용한 미술놀이를 하다 북키즈카페에서 책놀이 후기 글을 보며 더 다양한 책놀이를 시도해볼 수 있었어요. 더운 여름에 책 <숲 속 재봉사의 꽃잎 드레스>에서 본 드레스를 만들겠다고 남편까지 대동해 꽃잎을 주으러 다닌 것도 추억이 되었네요. 그러면서 책놀이에도, 미술 시간에도 자신감과 흥미가 커졌습니다. 책 육아의 황금기를 책꾸러기와 함께 보냈다는 것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책꾸러기가 우리집 책 읽기 역사의 시작이에요

사과나무2

책 육아가 뭔지도 모르던 제가 책꾸러기를 알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1년을 보냈습니다. 새 책이 올거라는 기대를 안고 잠이 든 아이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 둘째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보고 싶은 책을 직접 고르게 됐어요. 이젠 잠자리 독서도 자연스럽고, 도서관은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하나하나 쌓인 건 정말 책꾸러기 덕분이에요. 모든 추억은 오래도록 기억될 거예요. 우리집 책 읽기의 시작이니까요. 책꾸러기는 제가 엄마로, 저희 아기가 어린이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해 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많은 아이에게 그림책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 준 책꾸러기, 고맙고 사랑합니다.

## 책꾸러기가 보낸 책은 그달의 우리집 주제가 돼요

놀이꾸러기

엄마가 된 후 처음으로 그림책을 읽고 관심이 생겼어요.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림책. 그 관심은 책꾸러기로 이어졌고, 매달 선물 같은 그림책을 만나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책꾸러기가 보내주는 책들은 제가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의 끈이 되었고, 어떤 책을 읽어줘야 할지 막연했을 때 길라잡이가 되어주었어요. 우리는 책에 대해 항상 이야기해요. 책꾸러기가 보내준 <화난 책>을 읽을 때 서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실천해보기도 해요.

그 달의 책은 우리집의 그달 주제와도 같습니다.

아직도 첫 번째 책을 받았을 때의 감동을 기억해요. “부모와 아이의 사랑스러운 대화 속에 어린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보내드립니다.” 책 상자에 적혀 있던 말을 볼 때마다 동원의 선한 영향력이 느껴졌고 부모로서 책임감도 갖게 됐어요.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

## 책꾸러기 추천도서는 좋은 책을 고르는 가이드

보랏빛꿈

책꾸러기를 알게 되고 너무 좋아서 온 동네에 홍보했답니다.

고를 수 있는 책은 한 달에 한 권이었지만, 다른 추천도서들도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대여해보곤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싶어도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어려웠는데, 가이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꾸러기가 보내준 책들을 읽고 아이들은 한 뼘씩 자랐을 거예요. 책꾸러기 덕분에 아이들이 읽을 그림책도 더 많이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 아이의 책 취향을 알게 됐어요

동동이어머니

책꾸러기 좋은책맘이 된 당시 아이 책장은 전집이 주를 이뤘어요. 가끔 단행본을 사 주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보기도 했지만, 주로 제 취향의 책들이었습니다.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기보단 제가 보여주고 싶은 책,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좋은책맘으로 선정되고 나선 아이에게 무슨 책을 받고 싶은지 물어보게 됐어요. 아이는 추천도서 중 표지 그림이 마음에 들어 선택하기도 하고,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라온 책 소개글을 보고 선택하기도 했어요. 매달 초에 책을 선택하면 아이는 책이 언제 오냐고 보채기도 하며 책을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1년이 꼬박 지나니, 책장을 보면 우리 아이 취향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장난감과 친구가 더 좋아질 나이에든 책을 꾸준히 좋아할 수 있게 해준 책꾸러기. 책꾸러기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늘 바르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

## 막막했던 책 육아, 계단 밟듯 하나하나 올라서기

쫄쫄이

책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 엄마입니다. 아이가 두돌 무렵이라 좋은책맘들 후기를 참고해 제가 책을 고르는데, 처음엔 시큰둥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책을 쓱쓱 빼오며 행복해하는 아이를 보면 목이 아파도 읽어주게 됩니다. 용기 내서 도서관에도 같이 가 봤어요. 예전엔 장난을 많이 쳐서 못 데려갔는데, 28개월인 지금은 도서관 예절을 터득해서 보고 싶은 책을 한 권씩 꺼내와요. 조용히 말하는 법도 알고요. 집에 와선 본인이 고른 책이라 그런지 더 좋아하고 잘 봐요. 책 육아 막막했는데, 책꾸러기 덕분에 하나하나 계단 밟듯 아이와 올라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책꾸러기를 졸업했지만 아이를 위해 아직도 책꾸러기 택배가 온 것처럼 연기해요

윙윙윙윙벌

아이와 함께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던 시절, 책꾸러기를 알게 돼 아이와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책을 받는다니 그저 좋았는데, 책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곧 알게 됐답니다. 책 한 권을 한 달 동안 꾸준히 읽어주면서 매번 달라지는 아이와 저의 상호작용도 신기했고, 다음 번 책을 고르기 위해 한 달 동안 아이를 자세히 관찰하며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책꾸러기를 졸업했지만, 아이를 위해 책꾸러기 택배가 온 것처럼 연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책꾸러기 시절에도, 졸업한 지금도 아이의 눈을 살펴 그림책을 고르고 아이와 함께 읽는 순간들이 정말 행복해요. 저에게 좋은책맘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책꾸러기를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 졸업 후에도 이 시간을 계속 이어갈게요

봄썸이네가족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다소 이른 개월 수에 책꾸러기 좋은책맘이 되어 길게 책을 읽히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덕분에 아이가 책 읽는 습관도 들이고, 책 보며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가 책을 읽어주기도 해요. 아이가 책을 대하는 습관 형성에도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시다. 책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아이가 책을 꺼내는 순간까지도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졸업은 하지만 이 습관과 소중한 책 읽기의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삼남매의 마음도, 어휘력도 쑥쑥 자랐습니다

라운제나v

삼남매를 키우며 책꾸러기 좋은책맘이 되었습니다. 삼남매가 번갈아 책을 선택했고, 아이들은 책을 기다리는 설렘과 책이 전해주는 행복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삼남매는 책놀이 하는 주말을 기다렸고 덕분에 전 더 의욕 넘치게 준비했답니다. 전지를 펴 놓고 <열두 달 나무 아이> 책놀이를 했던 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아이의 연령과 시기에 맞는 책꾸러기 추천도서 덕분에 아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작가님들도 생겼답니다. 첫째는 김영진 작가님을, 둘째는 안녕달 작가님을, 막내는 백희나 작가님의 책을 더욱 좋아하게 됐어요. 책꾸러기 덕분에 삼남매가 책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도 자랐고, 사용하는 어휘도 쑥쑥 자랐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울축복이

책꾸러기가 보내 준 백희나 작가님의 <알사탕>을 아이와 함께 읽었어요. 아빠의 잔소리를 들은 동동이도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사탕을 먹고 나서, 아빠가 마음 속으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하는 걸 들곤 아빠를 안으며 “나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후로 저는 아이가 제 품에 안기거나 아이가 자기 전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하며 속삭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웃으면서 “내가 동동이도 아닌데 동동이 아빠처럼 왜 그래?” 하며 좋아해요. 전 “엄마도 동동이 아빠처럼 축복이를 많이 많이 사랑하니까” 하며 마구마구 뽀뽀해 줘요. 책꾸러기 덕분에 읽은 책이 이제 저와 아이의 사랑 표현이 되었네요. 책꾸러기와 함께했던 1년,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책꾸러기 택배 상자를 남겨줬어요

닥터캔디

책꾸러기 좋은책맘이 됐을 때,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뻐어요. 북키즈카페에서 활동하며 책 육아의 즐거움과 보물 같은 책들을 알게 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달 배송되어 오는 책꾸러기 택배 박스만 봐도 너무 좋아하던 아이 모습도 아직 눈에 선해요. 책꾸러기를 통해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일들도 떠오릅니다. 편지쓰기 이벤트는 특히 기억에 남아요. 아이가 정성껏 썼던 편지를 친정 부모님이 소중한 간직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책꾸러기와의 추억이 너무 아쉬워 마지막에 받았던 택배 상자는 버리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책꾸러기는 아이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랍니다.

## 책과 거리가 멀었던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가져와요

나이스차차차

책꾸러기를 알고 좋은책맘에 선정되고 졸업하기까지, 모두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매달 책을 고르고 기다리는 설렘, 책을 받고 읽던 행복한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책과 전혀 거리가 멀었던 아이들이 스스로 책도 가져오고 스스로 책을 펴보고 놀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돌이켜 보면, 이렇거나 성장한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저 스스로도 뿌듯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소중한 추억이지만, 최근 책놀이한 <민들레 사자의 꿈>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글자가 없는 그림책이라 아이들과 상상하며 이야기해볼 수 있었어요. 휴지심으로 민들레를 만들기도 했는데, 무척 재미있어 했답니다.



## 아이의 말처럼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황쓰

좋은책맘에 선정되고 기뻐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이네요.  
아이는 매달 저와 함께 고른 그림책이 오는 걸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선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매달 매달의 신청과 기다림,  
기쁨과 즐거움이 쌓여, 이제 졸업이라니 아쉬움이 크네요.  
졸업은 하지만 책꾸러기를 통해 알게 된 아이와 함께하는  
독서의 즐거움 그리고 행복은 꼭 이어갈 거예요.



## 이곳을 찾은 당신은 이미 좋은 엄마입니다

소현보경맘

책꾸러기와의 소통이 우리 아이와 미숙한 엄마였던 절 참 많이 성장시켰어요.  
큰 아이 유아기 때 인연을 맺은 후로 지금도 책꾸러기 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엄마는 힘들 때 많잖아요. 이제 저희 아이들은 고3, 중2로  
제법 손 가지 않을 정도로 키우고 나니, 그때 엄마로서 해줄 게 참 많았더라고요.  
또 지나보니 여유 없이 열심히만 하는 엄마의 행동은 성장도 가져오지만 성장  
뒤에 또 해결해야 할 숙제도 따라오더군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 여건이 되는  
만큼, 체력이 허락하는 하에 즐겁게 아이들과 놀면 좋을 것 같아요. 놀아주기보다  
함께 놀길 바랍니다. 놀아준다는 건 한쪽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함께  
논다는 건 쌍방이 즐거운 상황이니깐요.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신나게 함께 놀길  
바랍니다. 이곳을 찾은 “당신은 이미 좋은 엄마입니다”.

## 워킹맘의 아이와의 소통법

내일은 독서왕

한 달에 한 권씩, 벌써 1년이네요. 워킹맘을 핑계로 많이 읽어주진 못했지만, 책꾸러기 덕분에 양질의 도서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주자는 마음으로 아이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책을 코로나 관련 도서와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의미가 깊네요. 너무 감사한 1년이었어요. 책꾸러기의 의미를 늘 되새기며 앞으로도 아이와 행복한 소통 하겠습니다.



## 끝나지 않을 졸업

내사랑건이맘

북키즈카페 오픈하기 전에 졸업을 했어요. 매달 책을 선정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집 앞에 선물이 도착했지요. 아이도 저도 이번 달은 어떤 책일까 궁금해 하며 같이 읽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감사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던 마음도 기억나네요. 그러다 반가운 북키즈카페 오픈 소식을 들었고, 다시 재입학한 기분으로 카페에 오고 있어요.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알려 주고, 매달 소소한 기쁨을 준 책꾸러기에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좋은 부모님들, 저를 각성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책이 주는 위로와 교훈

12월의 기적

책꾸러기를 졸업한다니, 뿌듯하기도 하지만 섭섭하기도 하네요.  
그동안 받았던 그림책들을 많이 못 읽어준 것 같아 반성도 하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보려고 합니다. 저도 마음이 울적할 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곤 해요. 책 속에서 받는 위로와 교훈은  
좋은책맘이라면 다들 아시겠죠? 아이가 아직 책에 큰 관심은 없지만,  
책꾸러기를 통해 좋은 책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졸업 후에도 매달 아이에게 책을 선물할 거예요

우스마마

매달 책을 받을 때마다 새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도 한 달에 한 번 누군가가 자기에게 책을 선물한다는 걸 무척 반가워했어요. 덕분에 몰랐던 좋은 책들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처음 받았을 땐 무섭다고 읽지 않으려던 책도 몇 개월 뒤엔 슬며시 혼자 읽기도 했고, 카페 이벤트로 받은 <방귀쟁이 며느리>는 아이가 배꼽잡고 웃으며 보고 또 웃고 하는 최고의 책이 되었네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풍부한 색감과 일러스트를 감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선물들보다 값진 선물이 책이 아닐까 싶어요. 좋은책맘을 졸업하게 되어 너무 아쉽지만, 앞으로도 매달 아이에게 책을 선물하려고 해요. 책꾸러기, 고맙습니다.

## 알차고 믿을 수 있는 책꾸러기 추천도서

만복또복맘

책 육아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책꾸러기를 알았고, 두 번의 도전 끝에 좋은책맘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책꾸러기를 통해 받은 책 중 가장 좋아하는 건 사이다 작가님의 <고구마구마>예요. 그 외에도 <쿵구멍을 후비면>, <알사탕> 등 유명하고 인기 있는 책들을 골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책꾸러기 좋은책맘으로서 1년 내내 책 선물을 받는 기분이었고, 저도 택배를 받을 때마다 설렐어요. 추천도서 목록이 항상 알차고 믿고 보는 베스트셀러로 이루어져 있어 늘 행복한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설레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

들꽃좋아해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책 선택을 하고 나니 만감이 교차하네요. 1년 동안 어떤 책을 선택할지 고민하던 마음, 책을 받게 될 때까지 설레던 마음, 받으면서 선물 받는 것 같아 기뻐던 마음, 아기에게 책 읽어주고 책놀이 해주면서 즐거웠던 마음, 이벤트에 당첨되어 책 선물 받았을 때 행복했던 마음, 책꾸러기 덕분에 아기의 EQ와 IQ 지수가 높아진 것 같아 감사한 마음, 졸업을 맞이하면서 아쉬운 마음.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졸업은 하지만 계속 카페를 통해 책 육아에 대한 팁 많이 얻어가겠습니다.

## 선한 영향력을 오랫동안 지켜주신 동원육영재단, 감사합니다

투투오뇌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책을 선정하고 왔습니다. 좋은책맘에 선정되고 좋은 혜택을 1년간 누렸는데, 벌써 졸업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모두 잊지 마시고 마음 부자가 될 책 잘 고르시길 바라요. 지난 1년 동안 아이와 함께 읽을 책 한 권 고르는 기쁨, 추천도서들을 알아가는 즐거움, 책을 받고 아이와 함께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보람, 책으로 소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했던 노력과 열정의 시간. 이 모든 게 정말 꿈 같고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마지막 책을 받고 나서도 늘 하던 대로 아이들과 행복한 책 육아 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오랫동안 지켜주신 동원육영재단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동원책꾸러기 공식 네이버 카페인  
북키즈카페(cafenaver.com/igecq) 일부 일러스트

책꾸러기에게

보내는

편지

책꾸러기가 성장해온 16년은

좋은책맘과 아이들이 성장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책꾸러기와 함께한 시간,

또 그 시간을 지나 돌이켜 본 우리들의 성장기를

좋은책맘들이 진심 어린 편지로 전해왔습니다.



TO. 책꾸러기에게

책꾸러기야, 안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깥 세상 구경이 두려운 나날인데,  
너는 잘 지내고 있니? 난... 사실 집에서 우리 고맹이들과 하루 24시간을  
껌딱지처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쉽진않네.. ㅎㅎ

하지만, 이 시기에 책꾸러기 네가 준 선물이 하루를 짧게 만들어 주는  
마법을 부려주니 너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 

"고 마 워~" 

너란 친구가 있어줘서 단절된 바깥세상을 책에서 만날 수 있으니

외롭지 않아^^

작년 5월 처음 너에게서 책선물을 받고는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그 자리에서 너의 선물을 꼭 껴안고는 말줄을 쳐가며 책을 읽었는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





그 뒤로 6살 꼬맹이와 너의 서재에서 책을 둘러보고 신중히 1, 2위를 고르며  
'과연 이달에는 네가 어떤 책을 보냈을까? 궁금해 해^^'

도착하는 날이 가까워지면 우리 꼬맹이들이 현관문을 열었다 닫았다하면서  
얼마나 손꼽아 기다린다고..ㅋㅋ

그런데 이제 너의 책 선물을 기다릴날도 한 두번 밖에는 남지 않아서  
너무 아쉽기만해ㅠㅠ 사실 나보다도 이제 한 살씩 더먹은 7살,  
3살 꼬맹이들은 어떻게 .. ㅠㅠ 

지난 여러 달 동안 너와 함께 하면서 우리 꼬맹이들의 생활을 온통 바꿔놓았어.  
책을 더 가깝게 두고 소중히 여기며 이제는 책없이 하루를 절대  
마무리 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어.

꼭 잠자리에서 못해도 3권은 읽어야 다같이 꿈나라 여행을 떠날 수 있어.  
지금부터 우리 꼬맹이들 독서왕 도전해도 되겠지? ㅋㅋ





책꾸러기 너에게 바라는게 있다면..

딱한가지야~ 지금처럼 늘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거~~~  
 우리 꼬맹이들에게 멋진 큰 감동과 변화를 줬듯이,  
 수 많은 어린친구들에게 책의 힘을 전해주길 바라는 마음,  
 이점 하난 지켜줄 수 있지?



책꾸러기야~ 이렇게 너에게 손편지로나마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어  
 다시한 번 기뻐 \*^^\* 너도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길 바라고,  
 또 이럴 때일수록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주길 바래.  
 화이팅!

고마워  
 책꾸러기야  
 사랑  
 사랑

2020년 3월 날아라슈퍼보드~~로 부터



안녕하세요 쏘이엄마예요♥

일단 책의 즐거움을 일깨워주신 동원 책꾸러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를 낳기 전까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ㅎㅎ

근데 참 신기한게 육아하면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서

책을 바라보는 저만의 눈이 생기고.

특히 전 동원 책꾸러기를 통해 동화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엄마인 제가 책을 좋아하기 시작하니 저희 아들도 책을 참 좋아하게되었어요!^^

아기가 4개월 때부터 꾸준히 하루에 최소 1권 많으면

5권~6권까지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무릎에 앉아서 한 번도 안쉬고 4권은 기본으로 같이 읽더라구요

저희 아들이~~^^ 책꾸러기와 함께 똑 같 저의 육아는

자연스럽게 책과 함께하게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책과 관련한 다양하고 참신한 이벤트와

각종 책 관련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쏘이엄마 드림

안녕하세요?

저희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적어 도서관에 영유아책이 없고,  
북스타트 사업도 시행되고 있지 않아 인터넷 검색 중 알게된 동원책꾸러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좋은책망에 당첨되어 무척 기뻐하고, 매달 홈페이지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선택할 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책이 도착되기까지 설레고,  
책을 받고 감사하고 행복해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매달 한 권씩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책소감 및 좋은책글망에 당첨되어  
좋은 그림책들을 더 받게될 때에는 정말 낭부러지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원책꾸러기 덕분에 제 27개월된 딸은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말도 제법 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잡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작년에 좋은 책망을 졸업하면서 동원책꾸러기와 이별을 생각하면서 많이 아쉬웠는데  
동원북키즈카페를 만들어주셔서 인연이 이어져 너무 행복했습니다.

동원북키즈카페를 통해서 책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좋은 책소개와 책놀이 팁 등등)얻었고,  
특히 카페 회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은 힘든 과정을 이겨내게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가정에 우환이 연달아 발생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재작년에는 동원책꾸러기 홈페이지에서 감사미소 작성하면서,  
작년에는 북키즈카페에서 회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힘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아직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북키즈카페의 좋은채맘님들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여 받게될 좋은 그림책들로 채워야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않고 버틸 것입니다.

졸업 후에도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좋은 카페 만들어주시고 다양한 이벤트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카페에 회원 중 적합하지않은 게시글들을 관리해주실 분을  
 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상은 좋은 그림책들을 선물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실 때  
 회원들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원책꾸러기 사업과 동원북키즈카페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들꽃쪽아해 책꾸러기맘 드림



책꾸러기 리뷰~ 



안녕하세요. 책꾸러기님^^

책꾸러기를 만나고 우리 아이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 아이는 책을 즐겨 읽기보다는  
뛰어노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아이가 책꾸러기에서 오는 책을 선물 받으며 그 책을 소중히 여기면서  
즐겁게 읽기 시작했고, 책 선물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답니다.  
최고죠? 아이의 일상생활에서 책꾸러기가 가져다준 변화를 카툰으로  
표현해보았어요.

아이의 변화된 생활 모습이 잘 표현되었나요???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어서 엄마는 참 기쁩니다.



그 시작이 모두 책꾸러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책과 함께 바르게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주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책꾸러기 팬 햇님이 엄마 드림♥





< 책꾸러기를 만나고 Before / After >





## #많이많이 #사랑해요

책꾸러기님!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매일 두없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뽀뽀하고 안아주려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랑으로만 우리 아이를

키우려 못하는 엄마입니다.



잔 **많이** 읽는다는 이유로 잘 지어 읽는다는 이유로

어느 날은 아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너무나 많이 민다는 지적감에 무슨 딸 못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아이를 혼내고 있는 엄마였어요.

뭔가 만나려야 한다는 생각 끝에, 작년 9월부터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도 못하고 장특성을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읽어주는 내용에 반응하는 책을 같이 보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간혹씩 책이 목숨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줄타는 책을 사들이고

집을 책으로 채우면서 제 스킨은 빼듯래했습니다.



BRAND NEW LIFE STYLE [THE RED]



## #많이많이 #사랑해요



그러나 아이는 제 마음만큼 따라와 주지 못했고

변화 않는 책들은 밤이 끝없이 다른 책을 찾아 레베카 중에  
책꾸러기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책 관련이 목적이 나서 응원을 했는데  
흥미져서 여기저기를 보다 보니 카페를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였는 이 편지를 쓰게 될 건

저를 건강책 변하게 해주는 동안 북채즈 카페라는 공간은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입니다.

책꾸러기님을 만난 뒤 저는 잘나가고 있어요.

맘님들이 돈려주는 육아서 글들이 저에게는 육아서입니다.

돈려주신 책 취기를 통해

선정하신 내 아이에게 저급 읽히면 좋은 것 같은 책을  
함께 읽어 사기 됐어요.

새로 보든 그림책이 제가 읽었던 재밌고 마음에 듭니다.

그런 책꾸러기님은 통해 책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이제 사랑하는 큰엄마입니다

사랑하는 너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임마가 되기 위해

언제까지나 책꾸러기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잘 이끌어주시고 잘 지켜봐주세요.



멍멍리 드림  
BRAND NEW LIFE STYLE [THE RED]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여자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예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적어보는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키우게되면 책으로 키우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락장시절엔 공부안하고, 뒤늦게 후회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인데, 아이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길 바랬고, 그 때 책이 주는 이로운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책육아해마지 책을 많이  
읽어줘야지라고 막연한 생각만했을뿐,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우연히 다른 타카페를 통해서 동원책꾸러기 사업에대해 알게되었어요.

감사하게도 당첨이되어서 한 달에 한번씩 책을 받는 설레임을 느낄 수 있었고, 아이를 위한 책 구매를 앞두고 책  
선정이 어려울땐, 동원 책꾸러기 홈페이지에서 이달의 책 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 아이가 택배받는 기쁨을 알게된건 바로 책 꾸러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책 꾸러기 책을 택배로 받은 뒤부터는,  
택배만 오면 자기책이냐고 물었었습니다.  
저도 일년간 이달의 책 선정하고나면 설레임으로 책 배송을 기다렸었는데, 아이도 저와 함께 책을 기다리며 책이  
주는 기쁨을 배워갔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했던건 책 꾸러기에서 받았던 책은 모두 다 아이가 좋아하는 대박책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책만 쏙쏙 뽑아서 리스트에 넣으시는 것 같아요. 덕분에 꼭 전집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한 권의 책을 만나게되면, 즐거운 책육아를 할 수 있다는것도 알게되었어요.  
동원 책 꾸러기 통해서 받은 책 들 중에, 잊을 수 없는 책이 여러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방귀쟁이  
며느리'예요.



글도 모르는 아이인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만큼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라  
많이 읽어줘서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있고,  
아이에게도 특별한 책이었기 때문이겠죠.

책을 통해서 아이도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고, 책과 함께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니, 엄마로서 가슴 벅차더라고요.

책 꾸러기 책을 매 달 받으면, 반자마자 뜯어서 무릎에 앉아서 읽어줬거든요. 아이가 지금도 엄마 무릎에  
앉아서 책 이야기 듣는 걸 무척 좋아해요.

애착육아가 이런거 아닐까요? 책 읽어주기로 애착육아를 쉽게 다져나갈 수 있더라고요. 엄마의 편안한 품에서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로, 책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풍요로움과 엄마의 사랑과 애정을 느끼게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동원 책꾸러기에서 시작한 책 읽어주기의 큰 영향력있는 좋은 효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이도 한 달에 한 번 나의 책을 받는 특별한 기쁨을 느끼면서, 책 읽는 습관을 다져나갈 수 있었어요.

일년간 책 꾸러기에서 받은 책을 통해서, 책육아의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진 것 같아요.

아이도 여전히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책 꾸러기를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이달의 책 리스트를 보러가는데, 받고 싶은 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책 리스트가 계속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책 받으시는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당첨만 되었다고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동원 북키즈 카페 통해서도 책을 받을 수 있으니, 책에 대한  
연결고리를 계속 제공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아이가 책을 통해 넓은 세상을 보길 원했던 엄마로서, 아이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해주신 동원 책 꾸러기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아이가 책과 함께 세상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가슴 벅차고 든든해요. 동원 책 꾸러기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책이 주는 엄청난 기쁨을 알게 되길 간절히 바라보아요. 동원 책 꾸러기 통해서 받은 마음의 큰 선물을, 다시 세상에 좋은것으로 내어주는 엄마와 아이가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해보고요.

책이 주는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동원 책 꾸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0년 9월 27일

별맘 드림

감사한 마음에 체험수기를 써보아요.

저는 책꾸러기를 아이가 돌이 되기전부터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3번만에 당첨으로 책꾸러기와 연이 닿아 정말 수 있었어요.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친한친구가 알려주었기에 신청해볼 수 있었고

이후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었어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제가 고른 책은 이렇게였습니다. ★



우선 한정된 갯수 안에서 선택을 해야해서  
쉬웠고, 1순위 2순위 3순위 고를 수 있던 것 또한  
고민과 고민을 거듭했어요.

제목심에 너무 어려운 책을 골라 아이가  
어려워하기도 했지만요.

제가 고른 책을 아이가 좋아해 줄 때는  
내심 뿌듯하기도 했어요.

까르르 웃어봐 조작북의 경우 다시 구매하고  
싶은 정도예요. 조작북인데 아이가 너무  
좋아한 나머지 찢어졌거든요.

몇번은 테이프로 붙이고 수선을 하여  
겨우 살려서 사용했지만  
지금은 가버렸어요. ☾

무엇보다 아이가 우는 것과 웃는 것을 따라하는 게 너무나 귀엽고 웃겼어요.

또 의사표현이 서툴때였는데 자기맘이 안족을때는 책을 가지고와 우는 표정으로 다바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배고픈 애벌레 책을 책꾸러기를 통해 처음 접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고  
색감때문인지 아이가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읽어주면서 구멍이 푼리콧으로 손가락을 넣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나비가 되는 과정을 알려주어서 좋았던거 같아요.

또 아이가 식빵에 구멍을 뚫을 때에도 사랑스럽게 볼 수 있었어요.

잘잘잘은 노래를 부르며 읽어줬는데 어느순간 아이가 같이 부르고 있었어요. 서툴지만요.

지금은 제가 표시한 저책들 중에 어려워보이는 책도 제법읽으려고해요.

가장 좋았던 것은 주변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었고,

동원책꾸러기를 통해 아이에게 책을 골라줄때 저의 눈높이가 아닌

아이의 눈높이에서 고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책을 한달에 한권만 여러번 읽어주면 되겠다 싶어 꾸준히 읽어줬더니

2020년인 지금에도 아이가 책에 흥미있어해요.



책꾸러기에게 바라는 점은 좀더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나가면서 글밥에만 치중하지 말고,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 충분히 즐거움을 찾는 것이었어요.

글자는 모르지만 반복으로 읽어주니 내용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읽어주는 아이,  
그림만 보고도 책을 읽을 줄 아는 아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모양의 주제의 책들이 나와 아이의 흥미를 끌기 좋은데, 그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보니 어려웠던 거 같아요. 그런데 딱 정해진 안에서 고르다보니 어느새 일련이 되었고 우리아이  
책고르기가 수월해서 좋았어요.

아쉬운 것은 저는 책놀이글도 보고 참여도 해보았지만 그런 것을 많이 공유하기가 어려웠던 거  
같아요 책이리보기처럼, 그 책의 베스트 후기들도 함께 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어릴때 책을 싫어하는 아이였고 책을 보고 삽화 따라그리기는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쁜 그림의 책들을 지금도 좋아해요. 그냥 보고있으면 마냥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정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책장을 장만하고 도서 구입을 하기 시작했으며 도서관에도  
종종 가고 그 중에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면 구입해서 읽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전 제가 어릴때부터 중학생때까지 부모님이 사주신전집은 안봐서 우리아이만  
사줘야지 했는데 지금은 D30 수학, 3P, 자연동화를 구입했으며,  
인성동화나 기타 다른 동화도 전집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강동밭앗던 적은 위에 언급했듯이 아이가 책을 읽으며 좋아하고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했을 때예요.

바라는 점은 다양한 사람들이 알게되면 좋겠다 그리고 책신청에서 끝나지 않고 아이의 죄책책이 될 수 있도록 엄마가 아빠가 이끌어주는 꿀팁도 대방출해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책읽기, 독후감대신 독후활동, 책정리법C당 권구매를 많이 하다보니 어떻게 정리해야 아이가 더 쉽게 찾고 알아볼까싶어서요)등등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카페에도 엄마들에게 추천할만한 육아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2020. 2. 11

별이달이 사랑해 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사랑하게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게 막막한 초보 엄마였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조금씩 엄마 경력(?)이 생기자 보니 이제는 어느새 두 아이가 엄마가 되었네요.

지금의 저는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더 많이 웃어주지 못해서, 또 때론 작은 일에 아이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자신을 자책하기 보다는 '나의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 힘을 저는 책 육아에서 얻었어요. 저는 사실 책 육아가 뭔지도 몰랐어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조차 없었죠. 그저 저에게는 육아라는 게 때론 버겁고 벅다는 하루하루였거든요.

어느 날 친구가 아이들이 다 읽은 책을 물려주었어요.

이때부터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도 "그래. 이제부터 아이에게 책을 많이 보여줘야지!"

이런 야무진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 책장에 책이 꽂혀 있으니 그저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읽어줬던 것 같아요.

물론 돌 갓 지난 아이가 책을 들며다 보는 시간은 아주 짧았죠.

제 느낌으로는 몇 초 보고 휘휘 고개를 돌리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저 책이 집에 많이 생겼으니 읽어주자!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동원 책꾸러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와! 이런 제도가 있다. 12권의 책을 무코로 받을 수 있다.

그 글을 읽자마자 홈페이지로 달려갔죠.



그리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동원 책꾸러기가 책을 보내는 마음(포장 상자와 동일 글귀)이라는 글귀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가슴 한 켠에 따뜻한 기운이 번지는 기분이랄까요? 지금도 매월 책을 받으면 상자에 적힌 글귀를 읽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올해는 참 많은 이들에게 힘든 시간이기도 하죠. 코로나로 인해 일상적인 삶이 멈추고, 아이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웃고,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책이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가 되었죠. 그건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았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때론 힘들고 지치고 우울해지기도 하죠. 그런 순간들을 견뎌내고 감정들을 추스릴때 육아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원 책꾸러기에서 보내준 <엄마 교과서> 를 시작으로 순간순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육아서를 찾아보게 되었죠. 육아서 한 줄의 글이 또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책꾸러기가 저희 집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 전집 뿐만 아니라 단행본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도서관에 자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월 받는 책 뿐 아니라 책꾸러기 선정 도서는 꼭 찾아봐야 하는 필독서처럼 되더라고요. 도서관을 자주 찾다 보니 저도 아이도 그림책과 동화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책을 만나는 기쁨을 알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절리, 사랑류 등 단 것을 많이 안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절리가 먹고 싶다고 조르기에 추서에 사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에요.



책꾸러기를 통해 받은 <Rain - 비오는 날의 기적> 이라는 책에 나오는 할아버지의 대사를 인용해 "소중한 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라는 말을 몇 번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소중한 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라고 말이죠. 아이가 정말 귀엽고, 이런 상황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바로 책꾸러기의 힘!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보내는 책꾸러기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책꾸러기 활동은 몇 번 남지 않았지만, 1년 동안 함께 한 발걸음은 절대 지워지지 않고, 저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남게 되겠죠! ^^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 ~ 책꾸러기야

난 시안이엄마야. ^ 우리 시안은 책꾸러기 덕분에 한달에 한번씩 책선물을 받고 있어. 엄마도 시안도 기다리면서 책선물에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 ~ 책 전집을 사기보다는 한달에 한번 책꾸러기에서 추천받은 책이랑 엄마가 보여주고 싶은 책을 장바구니에 넣어 택배를 받아보고 있어.

시안은 택배가 오면 자기꺼냐고 물어봐.

엄마가 산 책 중에 호기심을 보이는 책도 있고, 아직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책도 많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다른 책에 관심을 보여서 전집을 안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양한 책을 접하게 해주고 싶어서 안사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진 만족하면서 지내. 이제 기억, 니온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외우기 보단 책을 통해 알게 되었어. 그 책은 "도와줘! 한글친구들"이야.

한동안 그 책을 읽어주었는데 어느샌가 읽고 손가락으로 써보기 시작하더라구. 아마 책이 시안이가 좋아하는 노란색이라서 좋아서 더 많이 읽었는지도 몰라. 시안이엄마는 시안이 나쁜 버릇이나 습관도 책으로 고칠려고 해.

반찬을 골고루 먹지 않고 편식을 하길래 "그럼 내가 먹을까?" 책을 읽고 좀 나아졌어.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는건지 밖에선 그리 잘먹는데 집에서는 힘들어. 그리고 딸은 보통 아빠를 좋아한다던데 ~ 우리 시안은 엄마를 더 좋아해.

그래서 아빠와 관련된 책도 사서 읽었어. 근데 별로 효과가 없어.

저번 달에 받은 "꿈이아빠"를 읽고 있는데 역시나 아빠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시안이만 알겠지 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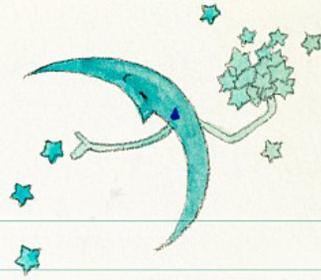
한동안은 무슨 말을 하든 싫다는 말을 해서 "모두 다 싫어", "내 안에 공룡이 있어요"를 읽었어. 책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화내고 싫다는 말이 안 좋은거란 걸 알게 되었어.

요즘 방귀, 똥 이런 말을 좋아해서 공유이벤트하고 받은 "방귀쟁이 며느리" 책을 요즘 매일 읽어. 시점을 건다는 말도 모르지만 그냥 방귀뀐다고 좋아해 ㅋ 시안이엄마, 아빠는 머릿속으로는 시안이에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그런데 TV 보는 걸 좋아해서 큰일이야.

엄마아빠도 TV 좋아해서 뭐라할 수가 없어. ㅋ 시안은 자지 보는 거 분다고 엄마아빠 보는 거 안보겠다고 울고 한번씩 채널싸움도 해.

어떤날은 좋아하는 책을 통째로 외워서 엄마, 아빠를 놀라게 하기도 하고.

지금 욕심은 TV도 보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그림도 그리고, 낙서도 하고, 뛰어대고, 노래부르고, 웃으면서 책도 좋아하는 아이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엄마가 사주는 책도 좋지만 한달에 한번오는 책 선물이 더 좋지 않을까? 책꾸러기야 고마워~ 나중에 우리 시안이가 더 커서 이해하게 되면 산타클로스같은 책꾸러기가 매달 선물을 줬다고 말해줄게



말이 늦게 터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동원책꾸러기에게 보내는 감사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세, 3세 남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올해 5월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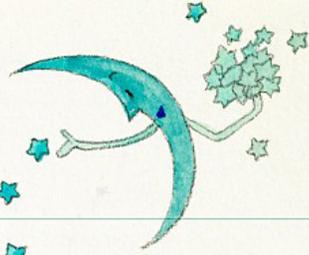
어떤 식으로든 책꾸러기에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동원책꾸러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이벤트가 생겨서 참 다행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지 제목에서 파악하셨겠지만 올해 5세가 된 첫째가 말이 터진게 얼마되지 않았어요.  
지금 생후45개월인데 생후40개월부터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죠.

언어폭발이라고 흔히 말하는 생후 24개월 이후에도 아이가 엄마, 물, 맘마,  
이게 뭐야? 정도의 말만 해도 저는 그게 걱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엄마가 처음이라 언어적, 비언어적 애정을 수시로 표현해주면  
아이는 잘 즐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만2세가 되었을 때 둘째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만큼  
신경을 못 써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후 30개월이 다가오도록 아이의 언어발달에 큰 변화가 없자  
슬슬 불안해지고 어린이집 같은 반 아이들의 언어발달 수준과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방법을 찾다 그림책 육아라는 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책은 읽어주었지만 아이의 수준에 맞고 언어자극이 되는  
책들을 골라서 본격적으로 읽어준 건 생후 30개월부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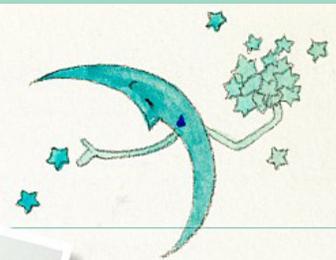
어떤 책을 읽어주는게 좋을까 검색하다가 알게된 사이트가 동원책꾸러기였어요.  
매달 다른 책들을 선정하고, 책에 대한 정보들도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어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니다. 이달의 선정도서 중 서너권을 구입해서 아이와 읽으며  
아이는 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얼마 무릎 위에 앉아 책을 읽으며  
동생 때문에 차지할 수 없었던 엄마의 품 안에서 맘껏 행복했습니다.

몇개월 뒤에는 동원책꾸러기로부터 매달 1권씩 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아이는 매달 말 배달되는 그림책을 선물로 생각하며 소중히 읽었습니다.

아이와 책육아를 한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이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때마침 영유아검진을 했는데, 언어발달 장애 가능성 소견을 받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켜야하나 커다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아직 확정도 아닌 가능성이니 지금처럼 책육아를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해보자는  
조언을 해줬고 언어발달치료센터보다는 엄마표 치료법에 비중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저는 책을 읽어주는 것 외에도 아이가 좋아하는,  
미술활동이 가능한 독후활동을 열심히 시도해 보았습니다.  
나무큐브에 그림책 속 그림도 그려보고, 미니북을 만들어 주인공 얼굴을 그려보는 등  
정말 여러 독후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도 참 즐거워했어요.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 아이와 그림책을 읽은 결과 생후40개월 무렵  
 아이는 하루하루 새로운 단어와 문장으로 저를 놀라게 했고,  
 지금은 수다스러운 5세 아이가 되었습니다.

혹시 책꾸러기 회원분들 중에서 아이의 언어발달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글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동원책꾸러기에서 공유하는 이달의 선정도서 목록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감히 조언 드립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늦게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답답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거겠지라고요.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동원책꾸러기에서 알려준  
 그림책들을 읽으며 아이가 아름다운 단어를 만나도록 기다렸던 시간이  
 힘들기도 했지만 가치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 아이의 책육아로 둘째는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하게 되어  
 이 또한 동원책꾸러기의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달 보내주셨던 책을 이제는 둘째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시은유, 책꾸러기맘 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애셋맘 플러스 닷등이 아들엄마 박지혜입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저를 소개할때 '통계학을 전공하고 중.고등수학 가르치던 선생님입니다'였는데 이전 '애셋맘, 닷등이 아들엄마, 전업주부 0 0 0입니다'가 되네요. 웃프네요. ㅎ

위에 딸들 키울때까진 제가 밀도 하고 나름 프라이드도 강해서 '주인공은 늘 나야나'~~ 이라고 다녔는데 뒤늦게 양은 아들녀석때문에 ㅋㅋ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란 말을 자주쓰고 있습니다. 아들 덕분에 어른이 되어가는 느낌도 들구요.

큰딸 고, 작은딸 중1, 막내 일곱살 ㅋ

나이차이많은 아들을 키우다보니 저도 아니다하면서 아들을 좀 귀하게 키웠나봐요 ㅊㅊ 혼도 크게 안내고 (작년까지요)

딸들 키우면서 늘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잘한다는 말만 들으니 콧대가 엄청 높았겠죠. 하지만 아들은 다르더라고요. 여자마음은 알것같은데 아직도 남자마음은 모르겠어요. 단순하고 똥 생각안하고 설치고 엄마말해도 똥등으로 돌려보내게 일쑤고 -.- 잔소리 많이하고 매도 들었지만 잘 통하지않더라이다.

저는 대학졸업후 막내알을때까지 밀도하고 아이들을 친정엄마가 거의 다 키워주셨는데 작년초 친정엄마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경제활동을 하다보니 엄마도 제가 거의 생활비드리고 심분거리에 살면서 매일 보고 전화통화하고 엄마가 저에게 의지 많이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니 제가 엄마가 없으면 안되었던것 같아요. 2019년 작년한해는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를정도였기때문입니다. 사춘기딸들과 6세 닷등이 장난꾸러기아들도 눈도 제대로 못 맞춰주고 살았던것 같아요.

나만 힘들다하고 ㅊㅊ



하지만... 저는 엄마더러구요.

나만 힘들다고 그러고 있기에 저를 바라보고있는 많은 아이들의 눈동자들이 보이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고있는데 나는 내 엄마만 그리워하고 내자식을 보살피지도않았다는 자책감 너무 컸습니다  
다시 힘내서 이리저리 좋은 책도 알아보고 읽고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원책꾸러기도 어느 카페를 통해 알게되어 가입하고 삼수만에 책선물도 받는 행운도 얻었구요. 책꾸러기 대상연령이 7세 아들이 막차를 탔더군요. 그래도 운은 있구나싶고 ㅋㅋ

올 초 코로나 터지고 유치원도 잘 못가고 밖으로 잘 다니던 우리 모자는 집에만있어 우울하던 찰나 책꾸러기 만나고 책 열심히 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책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ㅎㅎ

위에 두 딸들은 엄마가 일한답시고 책도 많이 못 읽어주고 사교육으로 시켰다면 막내 아들은 책읽어 열심히하고 엄마표학습 도전중입니다. 어 셋 키워보니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와 품으로 읽어주는 책만큼 좋은게 없더라고요. 아들이 책 가져와서 읽어달라하면 제가 하던인 멈추고 읽어준답니다. 비록 나이 많은 엄마지만 최선을 다해보려구요.

동원책꾸러기 너무 고맙고 늘 좋은 책선정 신경 써주세요.

주위에 홍보 많이하고있답니다. ^^♡

졸업하더라도 카페는 늘 들를거구요.

졸업맘들을 위한 이벤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뭘은 들어가지만 마음만은 들지않는 파이팅넘치는 맘이 되도록 노력하는 박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9년 12월 마지막 선물같이 3번 도전만에 당첨된 책꾸러기맘입니다.

처음 책꾸러기를 알게된건 지인을 통해서입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던데 이런 좋은건 많은 분들이 같이 하면 더 좋을것 같아 열심히 홍보중입니다.

아기 낳기전에는 책읽기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봤었는데 아이낳고 키우는 동안 육아책도 볼시간도 없었어요.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책을 보여줬더니 어려서 그러지 크게 관심은 없고 보여주면 보여주는데로 보긴 하더라구요.

다른아이들은 엄마한테 책도 꺼내오고 좋아하는 책도 생겨서 몇번이고 보여달라고 한다는데 우리아인 별 관심이 없나 싶었는데 책을 그냥 보여주지만 했던게 아이 흥미를 떨어트렸던거 같아요.

제가 책꾸러기맘에 도전하는 시기에 북키즈카페가 생겨 이벤트 도전겸 책놀이를 해봤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거예요.

책놀이가 뭔지도 몰랐는데 다른분들이 올려주는 글보며 생각보다 쉽게 할수 있는게 책놀이라는걸 알게 되었어요.

책에 나오는 동작 따라하기부터 시작했더니 아이가 책에 푹~ 빠져들더라구요.

이젠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생겨 읽어달라고 꺼내오기도 하고 책내용 기억해서 그걸 따라하기도 하네요.

특히 까만도끼 책보고 그림자놀이 하는걸 많이 공유해주셔서  
 아이랑 같이 해봤는데 이전 자기전 꼭 하고자야하는 놀이가 되었답니다.  
 아이아빠도 책읽어 주기만 하다가  
 이제 책놀이 배워서 책보며 몸으로 표현하고 놀아주기 잘하게 되었답니다.  
 아با와 함께 책읽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잠자리 독서도 역지료가 아니라 아이가 원해서 하는데 잠안자고  
 책책책을 계속 외쳐서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하네요.  
 아이책에 대해선 잘몰라 전집위주로 보여주었는데 이제 도서관에가서  
 책꾸러기 추천책들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아이 그림책인데 어른이 봐도 좋은책들이  
 많아 저까지 그림책에 빠져드네요.  
 책꾸러기 덕분에 아이와 함께하는 책읽기가 즐거운 놀이가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이가 책을 친한 친구로 알고 클수있게 책꾸러기와 함께  
 책육아 열심히 할게요~

2020.1.11

지워니맘 드림



# Hello

## 책꾸러기야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3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육아맘이라고 소개를 하는게 쑥스러우면서도 익숙하네요.

딸을 낳기 전에는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말이예요.

저는 한번의 뼈아픈 유산을 겪고 다음으로 임신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았는데요.

임신 중에는 참 의욕이 넘쳐서 닥치는 대로 육아서적이며 육아에세이 등을 읽어 무지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아는 뱃속 양수 안에서 살짝 기울어진 각도로 동동 떠다니기에 태어나서 바닥에서 자는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일이며, 엄마 어깨에 딱 안겨서 자는 게 양수 안에서 자는거랑 제일 비슷한 느낌을 줘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아니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기안에서 숨을 파하고 쉴때 폐에 가해지는 고통이 어마어마해

아기가 큰소리로 엉하고 우는 거라든지 이런내용을 깨달으며 저는 신생아시절 우리 딸이 5분 파닥잠을 자고

일어나도 애가 바닥이 불편해서 못자는구나, 10개월동안 지냈던 곳이란 환경이 많이 달라 적응이 힘든구나,

애도 목숨걸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더 잘 안아줘야지라고 저 자신을 많이 토닥였습니다.

게다가 흔히 말하는 친정버프까지 든든하게 받기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육아 스트레스란 거리가

멀어보였지요. 가끔 딸아이 또래를 키우는 언니, 동생을 만나게 돼 그들이 저에게 털어놓는 육아의 고충과

스트레스를 듣게 되면 속으로 남일마냥 엄마가 될 준비가 살짝 덜 됐나? 생각하고 넘겨버렸지요.

정말 아주 뭣도 모르는 생각했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남의 고충을 쉽게 생각한 별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자만하고 거만한 저에게도 위기는 닥쳐왔습니다. 남들이 18이라고 욕나와서 18개월이라고 하는 18개월 전후가 된 딸은 저를 지독히도 힘들게 했습니다. 하루에도 컵 안에 든 물을 다섯 번은 얹지르고 씻지도 못하는 저는 흔히 말하는 거지꼴이 되가고 신랑 퇴근시간에 맞춰 울고 침얼거리는 딸을 안고 밥을 하다보면 겨울이여도 제몸은 더워 땀이 뻘뻘 났습니다. 어느날은 너무 힘들어서 왜 육아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하는지 제 심정이 딱 그쪽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내느니 복직해서 돈을 벌러 가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백번천번이고 들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쳐가는 나날들이었지요.

그러던 저에게 도서관가는 엄마라는 책이 배달된 날이었어요. 첫 날에는 몇 페이지 읽지 못했지만 구구절절 내가 쓴 듯한 느낌, 누군가 내마음을 대신 읽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듯한 기분에 그 날 저녁엔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나처럼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소곤소곤 나를 안아주는 기분은 요 근래 힘들었던 저에게 선물같았습니다. 책을 읽고 어느정도 진정이 되고 나니 저도 좀 더 맑은 기운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가며 도서관에 가는 엄마처럼 나도 공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바꿔 나도 엄마는 처음이고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깐 그냥 흐르듯이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모두들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업을 얻은 후에도 자기 발전을 위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니깐, 마인드를 바꾸니 제가 아기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 책을 읽고 좋은 글귀는 한번 다시 적어보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거창한 수험공부나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아이와 나를 위한 작은 공부였습니다. 이 책을 읽어가며 마음에 들어 읽어보고 싶은 책은 다시 한번 적어놓고, 다른 맘님들이 읽고 올려주신 구절이 마음에 들면 캡쳐해서 저도 읽어보고 신랑도 읽어보았지요. (특히, 어떤 맘님이 올려주신 엄마 냄새라는 구절)





# Hello

## 책꾸러기야

또한, 카페를 보면 정말 기발하고 독특한 독후 활동들이 많은데, 저도 열심히 보고 배우는 중입니다. 보다가 이걸 정말 좋아보이고 내 딸도 해보면 좋겠다 싶은 달걀 깨기로 스트레스 풀기 등은 차곡차곡 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동원 책꾸러기는 우리 아이에게 정말 큰 선물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찾아오는 책 선물이 끌려 세달 넘게 사이트에 들어가 꼬박꼬박 신청한것이지요. 그렇지만 아이 못지않게 엄마인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먹었던 다짐과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힘내라고 말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작심삼일이라고 집안일과 아이와 씨름하다보면 어느 순간 그럼 마음가짐도 희미해질테지요. 그럴 때마다 한번씩 꺼내보고 훑어 읽어보며 다시 한번 우리 아이를 위한 나의 다짐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으려합니다.

동원은 참치만 만드는데 알았는데(저도 참치 무진장 좋아합니다.), 이런 좋은 장학사업을 하고 계시니 제 주변 아기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게 널리 널리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당첨되고 난 다음에 알렸어요. 왜냐면 날로 날로 인기가 높아져서 제 경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당첨된 다음에 동네방네 소문냈지요.

앞으로도 포기 마시고 이 좋은 사업 꼭 유지해서 모든 가정의 부모와 아이들에게 선물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사업의 관련되신 분들, 그리고 카페의 엄마아빠 아기들 모두 올해도 꽃처럼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3월 짜장토끼~♡ 드림



책꾸러기와 함께 보낸 1년, 고맙다.

죽복이가 처음 찾아오기까지 5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태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의 2달을 누워만 있어야했어요. 기대감과 두려움으로 매일 이것저것 알아보다 우연히 알게 된 “동원육영재단의 책꾸러기”. ‘죽복이가 꼭 태어나면 나도 신청해봐야지’ 엄마가 되면 하고 싶은 일 리스트에 올려두었죠. 그리고 3번의 도전 끝에 작년 가을, 우리아이 16개월이던 좀 이른 시기에 좋은 맘이 되었답니다.

그때는 짧은 글, 의성어 의태어가 많은 동시집을 자주 읽어줬어요. 아직 어리니 긴 글은 책장을 넘기는 것은 무리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긴~ 동화책도 슁슁 넘겨가며 눈으로 즐기더라고요. 보드북에서 이른시기에 페이퍼북을 접한 덕분에 책장을 넘기는 걸 터득했어요. 처음에는 유명하고 엄마가 보고 싶은 책을 골랐는데 아이는 어려웠나봐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에 맞춰 플라보라는 조언에 따라 여작인형인, 토끼가 주인공인 책을 골라주니 겨울 내내 정말 잘 읽었어요. 이때부터 “똑같다”, “여기있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찍 만난만큼 더 기쁘고 즐거운 1년이었어요. 덕분에 저희 집은 책 자체가 놀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장난감을 아예 버리지 못 하지만 안 보이는 서랍에 정리해두고 전면책장을 거실 안방, 놀이방에 곳곳에 두고 수시로 읽고 넣고 빼고 넣고를 반복했어요.

책 길, 책 계단, 책 집 책이 때로는 도구가 되기도하고 그림 자체를 보는 것을 즐겨워해요. 그림을 이야기해주는다는 생각으로 읽을 때마다 달라지니 아이도 또! 또! 라고 반응해요. 책 속 그림처럼 따라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아빠를 기다리는 토끼처럼 아이도 베란다에서 아빠를 항상 기다리고엄마가 달려갈것을 보고는 “아가 때 엄마 뺏 속에 있었어”라고 얘기해요. 유난히 긴 장마도 비오니까 참 좋다 통해 점점점점 적어도 물지 않고 즐기는 아이가 되었죠. 오색오색 당근 덕분에 당근을 통째로 오독오독 먹는 좋은 식습관이 생겼어요.

한 권 한 권, 매달 아이는 조금씩 책이랑 가까워지면서 같이 성장한 것 같아요. 아이는 아빠가 읽어주는 책이 더 좋은지 “아빠가 읽어줘” 쪼르르 아빠 품에 갑니다. 아빠는 그림 자체를 즐겨서 자기만의 대화로 읽어주니 좋은거봐요. 아이는 익숙하게 책이 있어서 함께 커간 것 같은데 사실 책꾸러기 통해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엄마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좋은 그림책 많이 접해보니 그때그때 아이 관심사, 계절에 맞춰 한 권씩 골라 사는 재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서점을 가서 책을 사서 보는 엄마가 되었어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지? 하루에 몇 권 읽어?로 알던 제가 여기서 보고 책을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읽는 지로 바뀌었어요. 한권을 몇 번씩 며칠동안 가져와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나 그림책, 동화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던 저는 좋은 우리그림책을 많이 소개받아서 좋았어요.

동물로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표현해주신 최숙희 작가님, 유쾌한 그림체로 아이의 마음을 그려내신 김영진 작가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준 이지은 작가님 등 책꾸러기 통해 알게 되고 찾아왔게 되어서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 작가님들의 신작도 많이 많이 소개해주세요.





행운의 책꾸러기! 

처음 그림책을 받던 날, 아이아빠가 태내를 보아왔어요.

"동원쌤이 알지? 그 동원에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거기 선정되면 이렇게 1년 동안 그림책을 주더라고!"

"그런 좋은 게 있었네. 그런데 거기 선정도 되고, 여보 대단한데?"  
일은 책꾸러기에서 했는데, 제 어깨에 뽕이 들기는 상황... 이거 뭐죠?

초보엄마라 많이 봐주고 싶은 욕심은 많았지만

어떤 책이 좋은 건지, 어떻게 읽어줘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요 행운의 "책꾸러기"를 만나게 된 후 정말 이득이,  
이런 "dog 이득"이!!!   

제일 먼저, 책고는요정이 생겼어요.

유명 전집 갖기 바빴는데, 그것보다 한권, 한권 좋은 책 고르는 안목을 기르  
고 있습니다. 주로 "이달의 그림책" 목록을 먼저 참고하고, 책 정보 버튼은  
꼭~ 눌러서 정독하죠. 그림의 느낌도 꼭 파악해서 아이가 좋아할지 예상도  
해봐요. (제가 이런 학구파였더니 놀라워요!)

그리고 책사냥정 해놓고, 어떤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이번에는 도서관 "희망도서"도 신청해봐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사주기도, 주위에 선물하기도 하구요!



두번째로, 북키즈 카페가 신의 한수였어요.

많은 북키즈 신배님들에게 책꽂이도 내워서, 쉬운 것부터 해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사건과함께 알려주니, 뭉기?도  
 생기자나구이. 봄의아니네 코로나19로 몇주간 집콕하다보니 많이 지루한데,  
 저에게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시간도 잘가고, 아아 정말 좋았어요 ♡

세번째로, 좋은책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첫번째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는 책을 많이보면 좋다고만 생각했었어요.  
 전집을 많이 보다보니, 책들이 거기서 거기 라는 생각도 들었구이.  
 그런데 북키즈를 둘러보니 그림책의 세계는 너~~~~ 무나 넓어졌네요!  
 유명 작가님들, 주제별 추천되셔도 재미있게 잘보고 있고요,  
 북키즈 맘님들의 책꽂기도 너무 유용했어요. 아이와 즐겁게, 좋은책 많이~  
 봐야지.. 하면서 매일매일 신세이긴 있습니다.

책꾸러기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좋은책이 많이 된 건, 너무모로 저게 큰 행운이었답니다.

든든한 육아 지원관 책꾸러기 ♡

매달 아이를 살러에게 해 주는

그리고 저게 항상 좋은 자극이 되어주는 책꾸러기 ♡

12달 졸업 후에도 계속 계속 꼭~ 함께 하고 싶어요.

기쁘습니다! 

2020. 3. 25

커피케이크 드림.



## Lovely Baby



안녕하세요. 10개월 여아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예요.

저희는 신혼집을 꾸밀 때 서재를 가장 신경 썼을 만큼 책을 좋아하는 부부예요.  
그러다 보니 출산 후 육아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책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정보를 찾던 중 우연히 책꾸러기사업에 관해서 알게 되었어요.  
두세 번의 도전 끝에 좋은책맘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정말 기뻐요.  
한 달에 한 번 책을 선택할 때는 좋은 책들이 많아 매번 책 선택에 한참 동안 고민을 하네요.



아직 책의 내용을 알만큼 큰 나이는 아니지만, 아이하고 놀아줄 때에  
항상 주변에 놓아두어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잠깐씩 관심을 보일 때 조금씩 읽어주니까 어느 때부턴가 물고 빠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던 책을 자연스럽게 책장을 넘기면서 읽기 시작하는 게 참  
신기했어요.

이제는 제법 책을 읽는 모습에서 진지한 티가 나서 흐뭇하기도 하고요 ^^  
남편은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아 놀아주는 것도 서툴러서 항상 아쉬워했는데  
요즘은 아기가 자기 전에 잠자리 독서로 같이 책을 읽으며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낸답니다.

# Lovely Baby



## Lovely Baby



받은 책 중에서 백주희 작가님의 '눈코입'이 요즘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귀여운 아가와 동물친구들이 눈, 코, 입을 가리키면서 노는 모습을 아이가 아주 좋아해요. 이 책이 보이면 다른 책 제쳐두고 꺼내와서 읽을 정도랍니다. 책 마지막 부분에 친구들이 다들 배꼽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가 이 장면만 나오면 자기도 인사한다고 꾸벅꾸벅거리고 있는게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더 자주 보여주게 된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토끼일까라는 책은 아이보다는 제에게 더 신기한 책이었네요. 그냥 이야기만 쫓 따라가는 동화책이 아니라, 아이가 위험에 빠진 토끼를 직접 구하는 행동을 취해야하는 책이라는 게 너무 새로웠어요. 아직은 낯설어서 하는 책이긴 하지만, 동화책도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있구나하고 제가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자주 읽어주게되네요

동원책꾸러기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아이가 앞으로 커가면서 책을 읽고 즐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앞으로도 책꾸러기 사업이 잘 지속되어 많은 분들이 책꾸러기를 통해 책육아에 대해 알아가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 2020. 3월. 크리아 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7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매달 부모인 저에게 행복을 아이에게 매달 크리스마스를 선물 해주는것 같아 동원 책꾸러기 카페를 가입하고 활동도 하게 되었어요.

전 해외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하다 올봄에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서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아는사람도 없던 그시기에 정말 책이 저한테 친구이자 위로이고 선생님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등센서가 너무너무 예민한 아이때문에 수면교육 책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읽었고 아이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도 '엄마 나는 자라고 있어요' 라는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어서 카페에 추천글을 남기기도 했죠~

제가 책을 읽고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을 신랑과 공유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있고 정말 오롯이 들이서만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육아를 함께하다보니 육아에 대해 서로 깊이 고민하고 내 아이에 대해서도 더 세심히 관찰 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뤄지더라고요~ 임신부터 17개월인 지금까지 이런과정을 거치다보니 자연스레 저도 신랑도 육아에 대해 적극적이고 내 아이의 변화와 부모인 우리의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잘 관찰하는 부모로 오늘도 공부하며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육아초보이다보니 제 시선에서는 놓치는 부분이 부분이 많은 아이들책은 정보도 부족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검색하면 광고들도 너무 많아서 난감했는데 동원책꾸러기홈페이지의 선정도서와 카페에 업로드 되는 상황별 추천도서 그리고 선정 도서 외에도 책육아 게시판을 통해 다른 분들이 어떤 책을 추천하고 활용하는지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간 선정된 도서 리스트들도 보면서 아이가 좋아할만한 책과 제가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책들을 찾아보는데  
 그시간이 저한테 참 좋더라고요. 8월에는 선정도서 리스트들을 쭉 살펴 보고 눈 코 입, 엄마랑 뽀뽀, 우리 엄마  
 어디있어요? 최숙희 작가님 책, 백희나 작가님 책을 구입했어요. 차근차근 후기글을 남겨서 정보 나눌게요.

그중에 특히 최숙희 작가님 책을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보면서 웃기도 하고~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른 책을 아이가 좋아해줘서 진짜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도 카페글을 보다 행복한물고기(미스반하워드 작가님) 세트를 구입했어요. (좋은 책 공유 감사드려요)  
 이렇게 책에 대해 알아가고 연계학습과 놀이법까지 알 수 있어서 진짜 책육아 초보도 고수도 카페활동이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크게 되는거 같아요.

카페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소하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정보들을  
 공유했었는데 책신청은 2번째 탈락 중이지만 정말 운 좋게도 가입 첫달에 베스트인기 마음에  
 선정되서 고릴라 코닥지라는 책을 고르는 행운과 기쁨의 시간을 선물 받게 되었답니다.  
 저와 아이에게 행복 1권을 배달받을 수 있게 해준 여러분들과 동원책꾸러기에  
 감사한 하루였어요.

아이가 요즘 쿵무에 손가락을 자꾸 집어넣어서 주저없이 골랐던건데 내용은  
 아직 아이한테 어렵지만 그림이 유쾌해서 그린지 귀기울여 들어서 두구두구 오래오래 아이가  
 좋아 할 책 같아요.



두달동안 당첨된다면 나라면 뭘 고를까? 어떤책이 좋을까? 하며 선정도서들을 살펴보니 시간 가는줄  
 모르겠더라고요, 코로나로 집콕생활을 하다보니 예전보다 월등히 폰으로 쇼핑하거나 SNS구경하며 단순히 폰을  
 만지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동원책꾸러기를 가입하고부터 같은 폰을 보고 있지만 카페를 살펴보고 정보를 얻거나  
 아이한테 어떤책이 좋을지 이런상황엔 이런시기엔 어떤책을 어떻게 아이와 보는 시간을 가질지 찾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더라고요~

지금도 이벤트 참여 글을 쓰면서 그간 육아와 책이 나에게 준 영향, 그리고 동원책꾸러기를 알게되고 생긴  
 변화들을 꼭 떠올려 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네요. 하루 중 오로지 내아이만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동원책꾸러기가 엄마아빠들에게 주는 첫 선물인거 같아요.

이만 편지를 마치면서 동원동원한 하루 되세요.



# 책꾸러기란

다

좋은책맘은 책꾸러기의 회원으로 1년 동안 매월 1권의 책꾸러기 추천도서를 받아보신 분들입니다.

좋은책맘 중 일부는 책꾸러기 카페인 북키즈카페의 회원이기도 하며, 북키즈카페 내에서 책놀이법,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책꾸러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좋은책맘 중에는 책꾸러기 활동 이후 그림책 작가가 된 분도 계십니다.

좋은책맘들에게 책꾸러기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 육아동지이다.

명명파

아이에게 꼭 필요한 책을 매달 선물해주시니  
이보다 든든한 동지는 없네요.  
책꾸러기 활동을 하며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친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가을맘

## 모두의 노력이다.

좋은책맘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아이와 책이 친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항상 좋은 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원육영재단 모두의 노력이 담겨 있어요.



## 키다리아저씨이다.

201212지한맘

물론 책 한 권 못 사는 형편이 요샌 흔치 않겠지만  
절실한 이들에겐 너무 큰 도움이고 선물일 것 같아요.



## 친구이다.

른이엄마

코로나로 밖에 나가기 어려웠을 때 유일하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었던 책꾸러기.  
책을 기다리고 택배가 왔을 때 아이와 함께 즐거워하며 신나게 읽었어요.  
책꾸러기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아이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엄마, 아빠는 행복합니다. 영원한 친구이고 싶어요.

## 새봄이다.

새봄하늘

‘새봄’ 하면 떠오르는 설렘, 신선함, 따뜻함, 꿈, 꽃, 희망 등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매달 어떤 책을 고를까 고민하던 설렘과 잘 모르던 책을 새롭게 알아가는 신선함과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으며 느낀 따뜻함, 책으로 열어 나가는 아이의 꿈과, 카페에서 함께 책 얘기를 나누는 꽃 같은 분들과,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며 느낀 희망까지(북드림 캠페인도 함께 나눈 희망이죠) 모든 것이 새봄 같은 책꾸러기 덕분에 행복합니다.

## 마음이다.

노을진

김재철 이사장님의 ‘책꾸러기가 책을 보내는 마음’ 문구를 읽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향한 어버이 마음에 눈물이 핑 돌며 감동한 적이 있어요. 책꾸러기 친구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받은 책을 읽으며 멋진 어른이 되고 또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도서관이다.

봄빛샤랄라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고 심지어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책꾸러기가 한 줄기 빛처럼 아이들에게 양식이 되어주었어요. 4학년 된 첫째도, 8살 된 둘째도, 5살 된 막내도 함께 읽을 수 있는 도서들이 많아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 행복이다.

후블리마밍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요. 2020년 중순부터 2021년 중순까지 1년간 책꾸러기와 함께하며 아이와 책 읽기라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추억의 조각들을 주변 동생들에게도 물려주며 행복한 기억을 나누고 있는데요. 책꾸러기를 통해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걸 아이도 엄마도 제대로 알았네요.

## 영양제이다.

루비레나

재미있고 멋진, 다양한 이야기들로 아이들을 쑥쑥 자라게 도와주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와 같아요.

## 초보 엄마의 길잡이이다.

푸두리

책꾸러기로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책을 받아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추천도서를 보며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참고하며 구입해요. 거기다 카페를 통해 알게 되는 육아 선배님들의 책놀이 아이디어는 감탄을 자아내요.

## 추억이다.

매실짠지

첫째 때 책꾸러기 좋은책맘으로 선정되어 1년간 행복했어요. 지금도 책장에서 그때 받았던 책을 보면 아이가 책을 읽으며 좋아했던 모습이 떠올라요. 이제 둘째가 조금 더 크면 첫째 아이가 봤던 책을 다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때가 되면 첫째 때 추억이 또다시 떠오르면서 둘째와도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이들의 미래이다.

다음맘

책꾸러기를 통해 그림책과 친해졌고 그림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가 펼쳐진다고 생각해요.  
책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도 얻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듬뿍 자라나고 있을 테니까요.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주는 동원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 설레임이다.

하늘날개

아이와 함께 도서를 선택하고  
한 달을 기다려 도착한 책은 기쁨이 되고,  
아이와 같이 책을 읽을 생각에  
기대되면서도 설레요.

## 힐링이다.

rlawhdrnra

지친 육아에 힐링이 되어준 책꾸러기.  
힘들 때마다 책 보면서 마음도 다잡게  
되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 산타의 선물이다.

시안맘

1년간 매달 아이와 책을 고르고 택배를 받고  
책을 읽고 웃고 설레고 좋았던 기억만 있네요.  
매달 책 기다리는 게 크리스마스 산타 선물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 시작이다.

사과나무2

육아라는 게 어렵고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생각에 외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육아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림책과 함께 그 성장의 시작을 열어준 게 바로 책꾸러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꾸는 꿈을 넘어 이 세상의 더 많은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고픈 마음을 먹게 해준 책꾸러기. 늘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 무지개이다.

세이맘1

무지개를 발견했을 때의 설렘과 환한 웃음을 책꾸러기 선물을 받아보면서 느껴요. 책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주기도 한 책꾸러기는 무지개입니다.

## 꿈이다.

아기된장

책 속 이야기로 꿈을 꿀 수도 있고 아이가 원하는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발행처 동원육영재단

발행일 2023년 1월

동원육영재단 홈페이지 [www.dwef.or.kr](http://www.dwef.or.kr)

동원책꾸러기 홈페이지 [www.iqeqcq.com](http://www.iqeqcq.com)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동원육영재단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